

## 방탄소년단, 일본 골드디스크 8관왕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8관왕에 오르면서 그래미 어워즈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달랬다.

일본 레코드 협회는 15일 방탄소년단이 '제35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3년 연속 '베스트 아티스트' 아시아 부문 상을 차지하는 등 총 8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 역사상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다 수상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는 아미(팬덤 명)에게 감사하다. 좋은 음악과 무대를 모두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과 일본 앨범 '맵 오브 더 솔 7:~ 더 저니~' 2개 음반을 '베스트3 앨범'에 올렸다. '더 저니'는 '올해의 앨범'으로도 뽑혔다.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올해의 다운로드 노래', '올해의 스트리밍 노래', '베스트5 스트리밍 노래'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2019년 일본 스타디움 공연 실황을 담은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재팬 에디션'은 '올해의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다.

앞서 이날 방탄소년단은 관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시상식 본 무대에서 단독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크게 화제가 됐다.

## 드레이크 신곡, 사상 최초 빌보드 싱글 1~3위 석권



▲ 래퍼 드레이크  
사진=유니버설뮤직코리아

2010년대 가장 성공한 래퍼로 꼽히는 드레이크가 신곡 세 곡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의 1~3위에 올렸다.

빌보드는 15일 드레이크의 새 앨범 '스캐리아워즈 2'에 수록된 '왓츠 넥스트', '원츠 앤드 니즈', '레몬 페퍼 프리스타일'이 핫 100 최신 차트에서 각각 1, 2,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또 신곡으로 이 차트 1~3위를 휩쓴 가수는 드레이크가 최초라고 전했다.

드레이크는 이번 핫 100 1위로 이 차트 1위 기록을 총 51회로 늘렸다. 머라이어 캐리(84회), 리한나(60회), 비틀스(59회)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남자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다 기록이다.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낸다.

캐나다 출신인 드레이크는 2010년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 '생크 미 레이터'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발표한 앨범 모두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기록해 2010년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가수로 꼽힌다. 특히 2018년 발표한 '스콜피온'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9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히트했다.

## 할리우드, 골든글로브에 '보이콧' 경고

할리우드 연예계가 영화 '미나리'를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개혁 조치를 요구했다.

16일 할리우드리포터 등 연예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할리우드 스타들을 고객으로 둔 대형 홍보대행사 100여 곳은 골든글로브 보이콧을 경고했다.

이들 대행사는 성명에서 골든글로브에 차별 행위와 배타성, 비전문성이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영화·TV 제작사와 방송사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부패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골든글로브가 대대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소속 스타 고객들의 골든글로브 참여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골든글로브는 지난달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뒤 작품상과 배우상 후보 지명을 배제해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골든글로브는 대회의 50% 이상이 영어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미나리'를 작품상과 배우상 후보에 올리지 않았다.



▲ 골든글로브가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사진=타운뉴스DB

여기다 최근에는 HFA 회원 중 흑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골든글로브의 다양성 부족과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HFA는 성명에서 회원 수를 최소 100명으로 늘리고 전체 회원의 13%를 흑인으로 채우겠다고 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

#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